

정읍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인기

반짝이는 녹색 잎과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매력 흠뻑 일상 벗어나 편안한 휴식 갖고자 하는 나들이객 갈수록 늘어

정읍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의 자랑거리인 굴거리나무 군락이 부주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싱그러움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갖고자 하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늘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조선 8경의 하나이자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내장산은 곱게 물든 단풍을 보러 오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더운 여름철 무성한 잎과 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싱그러움은 내장산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장산의 여름에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는 곳이 바로 신선봉과 장군봉에 있는 굴거리나무 군락이다.

굴거리나무는 잎 표면이 진한 녹색인데다 광택이 있어 내장산의 질풍루를 더해준다.

굴거리나무는 늘 푸르고 넓은 잎을 가진 나무라는 뜻이다. 한자어로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교양목(交讓木)이라고 부르는

데 교양이 있는 나무라는 의미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새잎이 난 뒤에 지난해의 잎이 떨어져 나가듯 자리를 물려주고 스스로 떠나는 교양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난대의 특징 수종으로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굴거리나무가 자생하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12월에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굴거리나무 아래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은 일품이다.

그늘과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여름에 이 곳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다.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작지만 화사한 여름꽃도 찾아 볼 수 있다.

한들한들 산책하고 싶은 이들은 일주문에서 내장사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명상에 젖어도 좋을 듯 하다.



정읍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굴거리나무 군락지에서 안내판을 보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연자대 전망대에서 내장사로 향하는 등산로에 있는 굴거리나무들은 가까이에서 관찰하기에 좋다"며 "많은 사람들이 정읍의 내장산을 방문해 천연

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굴거리나무 군락지를 찾아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교통 오지 '행복콜버스' 운영

27일부터 여산면 원수리 등 38개 마을 미니버스 2대 투입

익산시가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한 '행복콜버스' (사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콜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과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교통수단이다.

시는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미니버스 2대를 도입했다.

이 버스는 여산면 원수리 등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호 차량은 원수리와 제남리·두여리 방면, 2호 차량은 호산리·태성리 방면을 운행하게 된다.

버스는 오전 7시~9시까지, 오후 4시~6시까지의 이들 지역 5개 노선이 운행된다.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는 수시 콜방식 형태로 운행된다.

이용객들은 각 마을에서 버스를 호출해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는 여산면까지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여산면



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집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요금은 300원이다. 출발지에서 1시간 전까지 사전예약하면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콜버스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2022년까지 259억원 투입...40개 업체·연구소 입주

남원시는 2022년까지 259억원을 투입해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지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남원시의 화장품 산업 집적화 단지를 노안동 농공단지 1만4천532㎡ 부지에 지상 4층, 전체 건물면적 1만4934㎡ 규모로 건립된다.

40개의 업체와 연구소가 입주할 공간을 마련하며 물류 창고, 교육실 등의 기업 지원시설도 갖춘다.

식당, 카페테리아, 체력단련실 등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화장품과 화장품 관

련 용품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마케팅, 디자인, 유통업체들도 입주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화장품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 연구개발 시설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려는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화장품 관련 기업 15곳을 유치했으며 화장품 연구 개발의 산실 역할을 할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천연 화장품 원료의 추출·농축·포장 시스템 갖춘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 등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달에 설

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조사

내달 20일까지...농지 효율적인 관리·불법전용 막아

군산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전용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에 나선다.

25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1월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 시설 199개소 417동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목적사업 성실 이용 유무, 휴경, 타용도전용 등)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농지 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

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어서 이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편법 설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술센터는 현장조사와 생산·판매 현황,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농지 처분명령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

업진흥구역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전 수조사가 나서게 됐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농지 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해마다 지속해서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경관농업 특화 위해 경관지구 조성 박차

고창군이 경관농업의 특화를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군은 1읍면 1개소 경관지구를 조성해 특색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경관지구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군은 축구장 2100배 크기에 달하는 1500ha의 경관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